



제목	The Authoritative Guide to Naqsh-e- Rostam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Safirán-Mirdashti Publication
발행일	2015. 12.
저자	A. Shapur Shahbazi
출판국가	이란
페이지수	263
ISBN 또는 ISSN	978-6009394227

#### 내용 요약

낙쉐로스탐은 페르세폴리스에서 서북쪽으로 약 6km 떨어진 곳으로 거대한 바위 산에 있는 왕들의 무덤으로서 다리우스 1세 외에 크세르크세스 1세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및 다리우스 2세가 묻혀 있다. 이것은 바위의 조각과 페르시아의 전통적 영웅을 결부시켜 명명한 명칭으로 ‘로스탐의 그림’을 뜻한다. 다리우스 1세의 무덤은 60미터 바위의 안쪽으로 높이 26미터, 폭 10.9미터의 십자형에 부조로 조각되어 있다. 십자형 안쪽에 묘사된 기둥과 왕좌를 보면 다리우스 1세의 궁전처럼 보인다. 십자형 가운데 문처럼 보이는 곳이 왕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암굴 무덤의 구조는 메디아인들이 바위에 새긴 것과, 특히 기둥들이 지탱하는 지붕으로 보호된 출입구가 달린 무덤의 구조가 유사하다. 십자형 상단에 위치한 부조는 3층의 단 위에서 왼손으로 활을 잡고 서있는 다리우스 1세가 묘사되어 있다. 그의 앞에 불의 제단이 있고 그 위에 조로아스터교의 최고신인 아후라마즈다를 상징하는 날개와 수염이 달린 인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다리우스 1세와 불의 제단 아래, 2층의 단 위에서는 30여 곳의 정복지 민족들이 다리우스 1세와 불의 제단을 떠받치고 있다. 이러한 페르시아의 고분예술에서도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의도가 다른 모든 고려사항들보다 우선되었다. 비유적인 상징과 비문들이 다리우스 1세의 위대함과 그가 여러 민족들을 정복했다는 사실과 신이 그의 왕권을 정당화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